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Adolescents' Depressi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유 안 진**

강 사 이 점 숙***

박사과정 정 현 심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Yoo, An-Jin

Lector : Lee, Jum-Sug

Doctoral Course : Jung, Hyun-Sim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peer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depression perceived by adolescents according to age and gender of adolescents. Also, aim that identifies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s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2279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male 1150, female 1129) who live in Seoul and Kyonggi. All respondents answe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scales of emotion regulation style consist of three parts: support-seeking, avoidance/distraction, and active problem-solving.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t-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olde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perceived less peer attachment than younger adolescents. Specially female adolescents showed more differences between older adolescents and younger adolescents. Second, male adolescents showed more avoidance/distraction style and active problem-solving style but less support-seeking style than female adolescents. Third, older adolescents perceived more depression than younger adolescents. Fourth, peer attachment, age, avoidance/distraction style, active problem-solving style, support-seeking style and gend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depression. In other words, adolescents who had more avoidance/distraction style and support-seeking style, who had less peer attachment and active problem-solving style, who had more avoidance/distraction style and support-seeking style, who had less peer attachment and active problem-solving style, who was older adolescents than younger adolescents, and who was female adolescents than male adolescents perceived more depres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degree of peer attachment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dolescents' depression.

▲주요어(Key Words) : 또래애착(peer attachment), 정서조절 양식(emotion regulation style), 우울(depression)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유안진 (E-mail : eaj@snu.ac.kr)

*** 교신저자 : 이점숙 (E-mail : leejs0427@hanmail.net)

1.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서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이 필요하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며 신체적 성장의 속도가 빠른 반면 정서적·심리적 성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변화 외에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비롯된 심한 공부의 부담과 경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한인영·홍순혜·김혜란·김기환, 1997).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증상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인식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자발적으로 찾기 어렵다.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화 문제에 비해 내면화 문제인 우울은 가정이나 학교의 관심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광범위한 심리사회적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한창환, 2001)에서 우울증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동일 연령의 미국 청소년에 비해 현격히 높은 점수를 나타내,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의 심각성은 높은 발병을 못지않게 우울이 가족관계, 교우관계 및 학업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소년기의 우울이 성인기의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혜례, 2003)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 및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울이란 Bleuler에 의하여 처음 사용된 것으로 슬픈 감정의 정도가 심하고 오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혜례, 2003에서 재인용). 우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첫째, 우울은 정서적 증상을 동반하여, 우울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을 느끼며, 흥미와 기쁨을 상실한다. 둘째, 우울은 인지적 증상을 동반하여, 우울한 사람은 자기 비난과 죄의식 무가치함을 느끼고, 사고력과 주의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셋째, 우울은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여, 우울한 사람은 불면증, 식욕감퇴, 피로감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집단의 경우 우울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의 손상이 나타난다.

발달단계에 따른 우울 증상을 살펴보면 유아기에는 우

울 증상이 울음, 반항, 철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아동기 전반에는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아동기 후반에서는 점차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죄책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김은정·오경자, 1992).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대체로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는 것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심황 경우에는 불면증, 식욕부진, 배설기능의 통제가 잘 안되고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하며,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보다는 불안, 화,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되고 절망해 있을 때 극단적인 해결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김보경·조현춘·정대영·박영균, 1992).

청소년기의 우울은 이들이 경험하는 발달과정상의 큰 변화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은 자기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이나 자극에 의해 감정변화가 쉽게 일어나며 각종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격하게 표현하거나 위축되어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정옥분, 2002). 청소년기의 큰 고민거리인 역할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독립과 의존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방황, 과도한 역할부담 및 성적에 대한 부담감, 부적응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좌절감 등으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가정환경 변인 및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김혜례, 2003; 서혜인, 2004; 최선남·최희선, 1999)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적인 변인으로는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한유진·유안진, 1994)와 행동문제(신재은, 1999) 및 자아존중감(심희옥, 1998)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인기의 우울에 관한 연구들이 안정적으로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의 우울의 성차에 대한 연구는 그 결과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일부의 연구들(김미영·강윤주, 2001; 박영애·김은영, 1991; 홍강의·신민섭, 1994)은 청소년의 우울에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우울 수치가 남학생의 우울 수치보다 높다. 반면에 일부의 연구(김선경, 1998; 한유진·유안진, 1994; 한창환, 2001)들은 청소년의 우울의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조성진 등, 2001)는 중고등학생 22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성차가 유의미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결과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상의 특성상 청소년의 우울은 주의가 필요하며, 성차에 관해서는 합의되지 않고 있고, 연령에 따라 우울수준과 우울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울의 연령 및 성차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은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분리 개별화를 이루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발달과업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또래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Bowlby, 1982)이다. Bowlby(1982)는 어떤 연령에서도 믿을만한 타인으로부터 접근성과 반응성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Armsden & Greenberg, 1991). Bowlby(1981)는 내적역동성 모델을 기초로 하여 영아가 형성한 애착이 이후 대인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통해 애착이 영아기 뿐 아니라 전생애 발달에 중요한 인자임을 입증하였다. 일생에 걸쳐 나타나는 애착은 질병이나 두려움과 같은 취약한 시기에 특별한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접촉하려는 행동적 성향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애착행동은 부모 뿐 아니라 친구에게로 확대된다. 청소년 시기는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되기 시작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되는 시기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실제 생활하는 시간보다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으며 이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여러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옥정, 1998).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이들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며(김경숙·박미금, 1999), 부모의 이혼과 같은 역기능적 상황에서도 또래 애착이 높은 아동은 더 잘 기능한다(김남숙, 1994; 김옥·이완정, 2001).

이처럼 애착은 타인과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또래의 영향과 중요성은 자주 언급된다. Seiffge-Krenke는 청소년들이 가까운 친구의 상실 또는 친구와의 이별과 같이 스트레스를 주는 대인관계적 사건들에 많이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를 더 많이 보였다고 밝혔으며(김혜례, 2003에서 재인용) 또래로부터 인정을 적게 받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Beam·Gil-Rivas·Greenberger·Chen, 2002)들도 있다. Beam 등(2002)은 청소년의 우울의 또래 위험요소는 친구와의 부정적인 관계 사건의 수, 친구의

수, 지각된 친구의 우울증상 등임을 밝혔다. 또한 Field 등(2001)도 걱정 수준의 또래관계가 없고 친구 수가 적으며, 인기가 없는 청소년들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래애착과 우울과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옥정(1998)의 연구에서는 중1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래애착이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고1의 경우 남학생은 부애착과 또래애착이, 여학생의 경우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또래애착은 유의하게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재은(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로서의 친구지지가 유의하게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aja 등(1992)은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 애착과 심리적 안녕성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부모와의 높은 애착 안정성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또래애착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소수이면서도 그 결과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울은 정서 중의 하나이므로 정서조절과 우울은 관련이 예상된다. 정서조절은 자아 속에서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포함한다. 자아 속에서의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정서 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과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문용란, 1996)

유능한 정서조절은 지각, 해석, 목표설정, 반응평가, 시행의 단계를 거친다. 특히 둘째 단계에서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게 한 것,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바꾸는데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해석 또는 인지적 재해석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은 정신병리와의 중요한 연관이 있다(Bonanno, 2001)고 한다. 또한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절 양식은 그 방법과 상황,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Barett & Gross, 2001)

지속적인 정서인 우울은 좋지 않은 부정적 정서를 감시시키려는 노력인 정서조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울의 인지적 특성으로 자기비난과 자기비하를 경험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서적 각성의 원인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는 정서조절이 우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실제로 McFarland와 Buehler(1997)의 연구 및 Salovey 등(1993)의 연구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우울 및 불안과 부적상관이 입증되었지만 어떤 정서조절 전략이 우울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윤석빈(1999)은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개인차와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조절 양식을 능동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회피 분산적 양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들마다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의 수와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회피적이고 주의 분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구분을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여 부정적 정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또 하나의 정서조절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능동적 대처양식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해결 행동을 행하는 것,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피 분산적인 양식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면서 문제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지추구적 양식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며,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정서의 종류에 따라 그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조절양식에 차이가 있고 그 양식의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불안의 경우 조절 양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슬픔과 부끄러움에 경우 정서조절 양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가지 정서조절 양식과 삶, 건강, 대인관계에서의 만족을 측정할 결과 능동적 대처양식은 삶, 건강, 대인관계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지추구 양식은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을, 회피분산적 양식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모두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우울과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관계가 예상되고 또한 정서조절 양식에 따라 우울이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또래 애착, 정서조절 양식, 우울은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 연령,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청소년의 또래 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서울 및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5개 중학교 및 5개 고등학교에서 중학생 1350명과 고등학생 1237명으로 총 2587명이 표집되었고,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2279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연구대상 2279명 중에서 중학생은 11150명, 고등학생은 1129명이었고,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14세,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7세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가 977명(42.9%), 여아가 1302명(57.1%)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무직 59명(2.6%), 노동직 110명(4.8%), 기술직 201명(8.8%), 자영업 745명(32.76%), 사무직 536명(23.5%), 전문기술직 284명(12.5%), 관리직 147명(6.5%), 전문직 82명(3.6%)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무직 990명(43.4%), 노동직 180명(7.9%), 기술직 177명(7.8%), 자영업 486명(21.3%), 사무직 226명(9.9%), 전문기술직 31명(1.4%), 관리직 19명(0.8%), 전문직 73명(3.2%)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한달 평균수입이 150만원 이하가 489명(21.5%), 150-300만원이 986명(43.2%), 300만원 이상이 546명(23.9%)이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구분	연령		전체	
	14세	17세		
성별	남	492명	485명	977명
	여	658명	644명	1302명
전체	1150명	1129명	2279명	

2. 측정도구

1) 또래 애착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등(1991)의 IPPA-R(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

하였다. 또래 애착 척도는 25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5점 척도로 또래와의 관계를 평정한다. 또래 애착 점수의 총점 범위는 25-125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7$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2) 정서조절 양식

청소년이 가진 정서조절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윤석빈(1999)의 정서 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며, 지지 추구, 회피/분산, 능동적 대처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분되고, 각각의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12개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며, 각 하위 척도의 총점 범위는 4-16점이다. 지지 추구, 회피/분산, 능동적 대처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9$, Cronbach $\alpha = .65$ 와 Cronbach $\alpha = .74$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우울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조수철과 이영식(1990)의 K-CDI(Korean form of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ovacs(1981)의 CDI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발달시키고 표준화한 것이다. 응답자는 27개 문항에 대해 제시되어 있는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술문 1개를 골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우울 점수의 총점 범위는 27-8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문항 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공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아동학 박사과정 수료자 3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04년 11, 12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5개 중학교 및 5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전공자들이 각 학급의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설문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교사가 학급에서 진행사항을 감독·지시하였다. 모든 학생이 응답을 마치면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표 2> 또래 애착 요인분석

문항*	요인1 상호신뢰	요인2 소외	요인3 의사소통의 질
2	.615		
3	.719		
6	.714		
7	.734		
8	.521		
12	.682		
14	.525		
15	.740		
16	.754		
17	.732		
19	.545		
21	.692		
25	.622		
<hr/>			
1		.693	
9		.644	
13		.661	
20		.641	
22		.562	
23		.631	
24		.623	
<hr/>			
4			.652
5			.630
10			.701
11			.782
18			.779
<hr/>			
고유치	6.68	3.98	3.14
<hr/>			
설명변량	26.72	15.93	12.54
누적설명변량	26.72	41.65	54.19

* 질문지의 문항번호임

<표 3> 정서조절 양식 요인분석

문항*	요인1 능동대처 양식	요인2 지지추구 양식	요인3 회피분산 양식
7	.786		
8	.824		
9	.757		
11	.498		
<hr/>			
2		.461	
3		.779	
4		.819	
5		.810	
<hr/>			
1			.556
6			.561
10			.658
12			.749
<hr/>			
고유치	2.31	2.28	1.77
<hr/>			
설명변량	19.24	19.01	14.76
누적설명변량	19.24	38.24	53.01

* 질문지의 문항번호임

<표 4> 우울 요인분석

문항*	요인1 흥미 상실	요인2 자기 비하	요인3 우울	요인4 행동 장애	요인5 생리적 증상
2	.433				
5	.711				
7	.605				
8	.439				
10	.723				
11	.601				
16	.692				
18	.570				
21	.628				
24	.644				
25	.594				
13		.531			
19		.634			
26		.767			
27		.669			
1			.743		
6			.508		
9			.603		
17			.465		
20			.662		
4				.678	
12				.482	
22				.681	
3					.509
14					.511
15					.636
23					.534
고유치	4.28	3.48	2.37	1.66	1.63
설명변량 누적설명 변량	15.86 15.86	9.17 25.02	8.79 33.81	6.14 39.95	6.03 45.98

* 질문지의 문항번호임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구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각 변수들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과 t 검증(t-test)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애착, 정서조절 양식 및 우울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또래 애착, 정서조절 양식 및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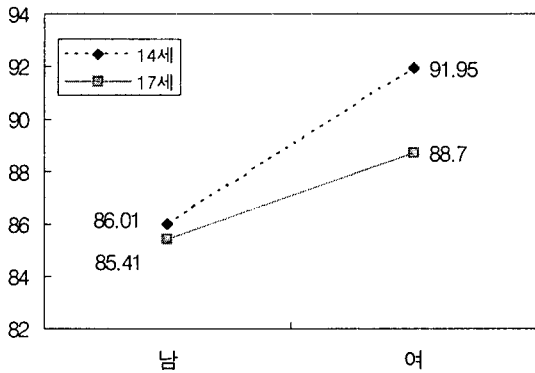
분석결과 청소년의 또래 애착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 양식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우울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므로 t-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표 5>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각 변인 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또래 애착의 변인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46, df=1, p<.05). 즉 남학생의 경우 14세보다(M=86.01)보다 17세(M=85.41)의 또래 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도 14세보다(M=91.95) 17세(M=88.7)의 또래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 애착이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또래 애착의 차이가 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 애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5>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또래 애착, 정서조절 양식 및 우울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전체자승	F
또래 애착	연령	2075.71	1	2075.71	13.73***
	성별	11911.28	1	11911.28	78.79***
	연령*성별	976.14	1	976.14	6.46*
회피 분산	연령	1.14	1	1.14	.21
	성별	58.39	1	58.39	10.87**
	연령*성별	1.79	1	1.79	.33
지지 추구	연령	1.43	1	1.43	.18
	성별	227.92	1	227.92	28.46***
	연령*성별	.07	1	.07	.01
능동 대처	연령	3.17	1	3.17	.48
	성별	241.4	1	241.4	36.21***
	연령*성별	14.06	1	14.06	2.11
우울	연령	6134.45	1	6134.45	120.74***
	성별	26.84	1	26.84	.53
	연령*성별	182.24	1	182.24	3.59

***<.001 **<.01 *<.05



<그림 1>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또래 애착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양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조절 양식 중에서 남학생의 회피분산 양식(M=.94, SD=2.33)은 여학생의 회피분산 양식(M=9.62, SD=2.31)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9, p<.01).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조절 양식 중에서 회피분산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남학생의 능동대처 양식(M=10.04, SD=2.57)은 여학생의 능동대처 양식(M=9.38, SD=2.6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6.03, 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능동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남학생의 지지추구 양식(M=10.17, SD=2.99)은 여학생의 지지추구 양식(M=10.81, SD=2.7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5.34, p<.001).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지추구 양식을 덜 사용함을 나타낸다.

<표 6>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회피/분산	남	977	9.94	2.33	3.29**
	여	1302	9.62	2.31	
지지추구	남	977	10.17	2.99	-5.34***
	여	1302	10.81	2.70	
능동대처	남	977	10.04	2.57	6.03***
	여	1302	9.38	2.60	

***<.001 **<.01

마지막으로 <표 7>에서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14세 청소년의 우울 점수(M=42.35, SD=7.03)는 17세 청소년의 우울 점수(M=45.59, SD=7.24)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10.82, p<.001). 이

는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지각이 다르며, 연령이 높은 17세 청소년이 14세 청소년에 비해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7>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우울 차이 검증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우울	14세	1150	42.35	7.03	-10.82***
	17세	1129	45.59	7.24	

***<.001

2. 연령, 성별, 또래 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한 Durbin-Watson 계수 산출 결과 1.72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선성의 존재 여부 파악을 위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의 값이 .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이상이면 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허용도의 값은 .81~.99로 모두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1~1.327로 모두 10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잔차항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이므로 정상적인 중다회귀분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에서 청소년의 우울 성향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또래애착(β=-.37, p<.001),연령(β=.19, p<.001), 회피분산(β=.12, p<.001), 능동대처(β=-.12, p<.001), 지지추구(β=.05, p<.05), 성별(β=.04, p<.05)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 애착을 덜 경험할수록, 회피분산 양식과 지지추구 양식을 사용할수록, 능동대처 양식을 덜 사용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우울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령, 성별, 또래 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총 21%로 나타났고,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8> 청소년의 우울 성향에 대한 연령, 성별, 또래 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의 상대적 영향력

우울		
설명변수	b	β
1. 또래 애착		
2. 연령 ¹⁾	-.22	-.37***
3. 회피분산	2.83	.19***
4. 능동대처	.38	.12***
5. 지지추구	-.34	-.12***
6. 성별 ²⁾	.14	.05*
	.59	.04*
상수	59.40	
F	97.81***	
R ²	.21	

***<.001 *<.05

- 1) 14세를 0, 17세를 1로 가변수화 함.
- 2)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가변수화 함.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및 우울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연령, 성별, 또래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279명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및 우울을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17세보다 14세의 또래애착이 더 높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또래에 대해 더 많이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연령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옥정, 1998)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입시경쟁 속에서 또래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친밀한 관계에 헌신할 시간이 더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 척도로 사용된 IPPA-R의 경우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양과 개방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또래애착이 높다는 것은 또래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훨씬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래애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학생의 경우 또래와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또래간 협력과 개방보다는 경쟁과 폐쇄성을 더 많이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후술되고 있는 우울의 연령차이 즉,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더 우울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고등학생의 또래관계에 대한 중재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일선학교 관계자와 부모들은 학생들에게 또래들과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에 대해 더 많이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밀한 2인 관계에 더 몰입하고 친구의 도움을 더 많이 구하며, 친구와 더 높은 애착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옥정, 1998; 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et al, 1984; Kenny, 1987; Raja, et al, 1992)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여학생의 경우 아래의 정서조절 전략에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울정서를 조절하려는 방법으로 지지추구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우정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남학생은 여러 명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활동을 공유하며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반해 여학생은 친밀하고 심도 있는 소수와의 관계를 선호하며 이들과 주로 대화 등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와 비밀을 공유하며 또래관계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또래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에 성차가 나타나고 특히 또래에 대한 애착에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남학생은 14세의 또래애착과 17세의 또래애착이 덜 차이가 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이 차이가 훨씬 더 크다. 이는 14세 청소년의 경우 중학생이므로 상대적으로 17세의 고등학생보다는 학업에 대한 부담도 적고 개인적인 여가 시간도 많아 또래관계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17세 되면 고등학생이 되어 남녀 모두 대학입시와 내신의 부담 속에서 또래 관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또래관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데 특히 이전에 또래관계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던 여학생의 또래관계에 대한 투자가 더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이 다르다. 즉, 회피분산 전략은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고, 지지추구 전략은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며, 능동대처 전략은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하고 여성은 더 소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며 관계지향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오욱진, 1998; Thayer et al, 1994)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남학생은 회피 분산 양식과 지지추구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학생은 지지추구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

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여성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주의할 기울이고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사회화 시키는 반면, 남성에게는 관계에의 매몰보다는 과업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것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장독립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여성은 장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대인간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도록 강화를 받고 이로 인해 남성에 비해 대인관계에 더 민감하고 남성보다 친구관계에 더 민감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울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남성은 적극적으로 강하게 될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우울한 정서를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본인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지추구 양식보다는 우울한 정서를 외면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맞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회피분산 양식과 능동대처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중학생인 14세 청소년보다 고등학생인 17세 청소년이 더 많이 우울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이 더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미영·강운주, 2001; 박경애·김은영, 1999)와는 일치하지만 연령에 따라 우울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곽금주·문은영, 1993; 김혜례, 2003; 신재은, 1999; 홍강의·신민섭, 199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이영자, 1996; 이은희 등, 2000; 한창환, 2001)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의 우울이 더 높고 특히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우울과 아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한유진·유안진, 199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업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많은 경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울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우울을 나타낸 것은 이들의 또래애착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울한 정서를 더 많이 느끼지만 또래애착이 낮아 또래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우울한 정서를 교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부모나 또래 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변수는 또래애착, 연령, 회피분산 양식, 능동대처 양식, 지지추구양식, 성별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회피분산 양식과 지지추구 양식은 적게 사용하고 능동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

우선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친밀한 관계가 우울과 역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신재은, 1999; 옥정, 1998)와 일치하지만 또래애착이 높으나 부모애착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우울을 나타낸다는 연구(Raja et al) 및 부모애착은 우울을 낮추는데 반해 또래애착은 유의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또래관계가 부모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연구(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et al, 198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사실중의 하나는 또래애착과 우울간의 관련성에서 문화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부모애착은 우울에 일관되게 관련이 있지만 또래애착의 경우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또래애착과 우울의 관련성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유의하게 우울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된 우울이 학업과 관련된다는 앞의 진술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학업에 대한 기대와 압력이 높은 부모 외에 또래들과 의사소통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우울한 정서를 덜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추론된다.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발달적 과도기에 애착 행동체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소년의 정서조절 양식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다, 즉, 회피분산 양식과 지지추구 양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능동적 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적극적 대처가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고 소극적인 회피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 전략은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는 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민하영·유안진, 1999)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타인의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우울을 개선하도록 돕기보다는 오히려 우울을 재경험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우울한 기분을 타인의 지지를 통해 전환하려는 시도는 순간적인 효과만을 지닐 뿐이므로 지지추구 양식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청소년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자 타인의 지지를 구하지만 우울하게 만든 사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며, 타인의 지지를 구하려는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추구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회피분산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의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우울하게 만든 사건을 단지 외면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우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다른 생각이 우울 정서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능동적 대처 양식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 체고해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목표를 세우고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불합리한 자기비하로 인한 우울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정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한다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규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울과 같은 정서를 질문지를 통해 조사했기 때문에 심층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면접이나 정서일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우울에 관한 더 풍부한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중에서 또래애착만을 고려하였지만 부모와의 애착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울의 증가가 뚜렷한 청소년기의 또래애착과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정서발달에 또래관계가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여, 우울감소를 위한 또래간 상호소통과 관련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정서조절 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회피분산 전략이나 지지추구 전략과 같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려는 전략은 우울을 증가시키고, 능동대처와 같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전략이 우울을 낮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서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청소년들에게 가상의 문제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해결전략을 모색해보도록 하여 능동대처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요구를 제시해 준다.

- 접수일 : 2005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9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1월 24일

【참 고 문 헌】

-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미영·강윤주(2000). 청소년기 우울성향과 관련된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2), 261-270.
- 김은정·오경자(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3(1), 117-128.
- 문용린(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건강연구소 (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 자료), 59-89.
- 민하영·유안진(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20(1), 61-77.
- 박경애·김은영(1999).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5**. 한국청소년상담원.
- 신재은(199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옥진(1998).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지향성 및 성취지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석빈(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최태산·서미정(2000). **남녀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정옥분(2002).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수철·이영식(1990).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6.
- 최선남·최희선(1999). **아동의 우울 정도에 따른 가족환경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91-100.
- 한유진·유안진(1994).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대한국정학회지**, 32(3), 147-157.
- 한인영·홍순혜·김혜란·김기환(1997). **학교와 사회복지**.

- 서울: 교육과학사.
- 한창환(2001).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 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강의·신민섭(1994).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정체감 발달. *신경정신의학*, 33(6), 1378-1388.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 (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Austin, S., & Joseph, S.(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Avenevoli, S., Sessa, F. M. & Steinberg, L.(1999). Family structure, parenting practices, and adolescent adjustment : An ecological examination. In E. 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65-92).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nk, L., Forgatch, M. S., Patterson, G. R., & Fetrow, R. A.(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 Mediator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71-384.
- Barett, L. F. & Gross, J. J.(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 (287-31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am, M. R., Gil-Rivas, V., Grreberger, E. & Chen, C.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5), 343-357.
- Benedek, R. S. & Benedek, E. P.(1979). Children of divorce : Can we meet their needs?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155-169.
- Bonanno, G. A.(2001). Emotion self-regulation.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251-285).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Dreman, S.(2000). The influences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2, 41-71.
- Field, T., Diego, M. & Sanders, C. (2001).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s. *Adolescence*, 36(13), 491-498.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4).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Hetherington, E. M.(1979). Divorce: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34(10), 851-858.
- _____, Hagan, M. S. & Anderson, E. R.(1989). Marital transition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3), 230-238.
- Jaffe, M. L.(1997). *Understanding parenting*. Boston, MA : Allyn & Bacon.
- Kenny, M. E.(1987). The extent and fu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urdek, L. A.(1981). An intergrative on children's divorce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36(8), 856-866.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 P. Vincent(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2, 131-182. Greenwich, CT : JAI.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 Y : Tichnor & Fields.